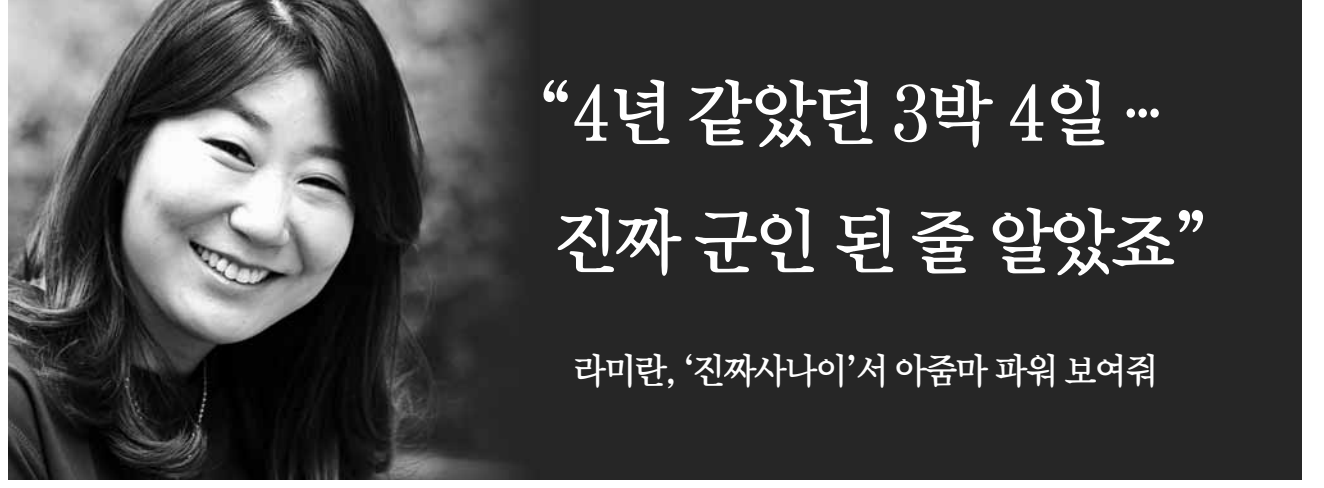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Rows 6-12 showing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programs like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2014 인연아시안게임', etc.



“4년 같았던 3박 4일... 진짜 군인 된 줄 알았죠”

라미란, '진짜사나이'서 아줌마 파워 보여줘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3박4일인데, 4년 같았습니다. 아줌마가 군대에 갔다. 출산하고도 여전히 낯선 ‘미씨족’이 아니라 불어난 살들과 바닥을 치는 체력 때문에 숨이 차는 일이라던 짝사랑 아줌마. 하지만 MBC TV ‘진짜사나이-여군특집’에서 배우 라미란(39)이 바로 아줌마의 힘을 보여줬다. 11세 아들을 둔 우리 나이로 40대, 작은 움직임에도 관절이 옥신거려지던 ‘생존본능’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근성 있는 아줌마 라미란의 모습이 출연진도, 시청자도 ‘군대제질’이라는 칭찬(?)을 했다. 시청자에게 별미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가 대박이 나오지 않게 나는 바람에 MBC도 깜짝 놀란 ‘진짜사나이-여군특집’이 21일 막을 내린다. ‘집에 돌아와서는 2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처음 3~4일은 정말 손가락도 꼼짝 못했고요. 온몸이 멍투성이에 체력이 완전히 방전됐으니까요. 거기 있는 3박4일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서 바로 좋아떨어질 것 같지만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하루 1~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화장실에서 큰일도 못 봤고요.” 시청자로서도 능히 짐작이 되는 ‘후일담’이다. 그야말로 ‘난데없는 군대 훈련’에 던져져 ‘봉분’을 당한 것과 다를없기 때문이다. “어휴, 처음에는 그럴 줄 전혀 몰랐죠. 평소 ‘진짜사나이’를 잘 보지도 않고 있었고, 제작진에게 몇 번을 물어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다른 예능처럼 하면 되겠지 싶었어요. 심지어는 나만의 캐릭터로 잡아야 하나 고민을 했으니까요.(웃음) 그러나 현장에 가면서 사이타와 삶은 계란을 싸오지 않았다는 험난한 소리를 했죠.” 라미란은 방송에서 보이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봐주거나 쉬게 하면 그렇게 리얼한 표정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작진도 그럴 줄 아는 거죠. 저는 그래도 다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오프닝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웬걸, 그냥 저희를 현장에 던져놓고 가더군요. 그래도 설마 촬영하다 ‘컷!’을 외치며 쉬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캐릭터고 나발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자고 결심했죠.(웃음)” 라미란은 시청 자신의 체력과 관절을 염려했지만 사실 훈련

은 가장 잘 받았다. “제가 순발력이 있어요. 눈썰미도 좀 있고요. 워낙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각계전투나 화생방 모두 교관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보고 ‘알고 보면 복과공작왕’이라고 하더군요.(웃음) 저도 훈련받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내가 군대 체질이야’라고 3년 정도 생각해본 것 같아요. 하하.” 최지나, 맹지, 헤리 등이 눈물, 콧물 쏟아내며 숨이 넘어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낙오한 화생방훈련에 대해 라미란은 “뛰는 것보다는 낫다”며 웃었다. “군대 문제가 워낙 민감한 시기에 방송되는 것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육탄 먹는 게 아찔할 뻔했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니까 놀라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뻘뻘 타져 민감한 때에 저희의 어수룩하고 웃긴 모습이 방송을 타면 안 된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당시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매번 울어요.” 라미란은 오후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와 tvN ‘택시’에서 뽐낸 이른바 ‘19군(崇) 입담’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예능계를 후끈 달궜다. 이번 ‘진짜사나이’에 발탁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녀는 “나는 배우인데, 예능으로 주목받은 것 같아 좀 조심스럽다”며 “배우로서도 이렇게 주목받아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연극·뮤지컬 무대에만 서다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출연하면서 영화에 진출한 그는 TV드라마에서 얼굴이 알려지면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게 됐다. ‘작파’ ‘패션왕’ ‘더킹 투하츠’ ‘마녀의 연애’ ‘막돼먹은 영애씨’ 등의 드라마에 잇달아 출연하면서 연극판에서 쌓은 내공을 과시했고, 영화에서도 덩달아 주가를 날렸다. 그는 현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빅마치’ ‘워킹맘’ ‘국제시장’ 등 네 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네 편의 영화 출연을 고심하고 있다. “작품이 많은 것 같지만 다 비중은 적어요.(웃음) 그래도 지금 너무 좋아요. 다들 말고 말고 말고 지금 정도만 계속 유지되면 좋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라미란은 현재 KBS 2TV 수목극 ‘아이언맨’에도 출연하고 있다. 무정한 사기꾼 바에리사 역이다. /연합뉴스

EBS

Table with columns: Time, Program Name, Host/Topic. Rows include World News Review, EBS 인문학 특강, 코코몽(재), etc.

EBS플러스1

Table with columns: Time, Program Name, Host/Topic. Rows include 알짜 국어 문법, 2013 논술, 수능특강 light, etc.

EBS플러스2

Table with columns: Time, Program Name, Host/Topic. Rows include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2013 나의 성공비결,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음 8월 29일 丙申)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text for each sign, including birth dates and lucky/unlucky factors.

‘별에서 온 그대’ 美서 리메이크 된다

소니픽처스와 조율... ‘원작 포맷 살릴 것’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사진)도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 지상파 ABC 채널을 통해서다.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19일 “얼마 전 ABC 방송국에서 파일럿 오더를 받았으며 현지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와의 세부 계약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B엔터테인먼트의 문보미 대표와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EP(executive producer) 자격으로 미국판 리메이크 작업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난 2월부터 미국 리메이크를 준비해왔고, 좋은 파트너들과 한국 드라마를 미드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내년 초 시즌 오더까지의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시즌제 미국드라마가 되도록 미국 쪽 제작사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에서 온 그대’ 미국 리메이크에는 미국 메이저 제작사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이 제작사로 확정되었고, ‘실드’ ‘엔젤’ ‘뱅크 파이어’ 등을 집필한 리스 크레프트와 사라 패인 작가가 대본을 맡아 현재 파일럿 대본을 집필 중에 있다고 HB엔터테인먼트는 밝혔다.제작사는 “파일럿 대본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 파일럿 제작 및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캐스팅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미국판 ‘별에서 온 그대’의 남녀주연공 이름은 제임스와 라크이며, 미국판은 한국 원작의 포맷을 살려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과 스타의 사랑을 그린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별에서 온 그대’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는 왜 항상 세상을 구해야하나, 한 여자만을 구하면 안 되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은 이야기에 기반해 미국 리메이크도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SBS는 여세를 몰아 ‘별에서 온 그대’ 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해 등단한 10만여 명을 모았다. 현재 이 전시회는 일산컨텍스로 옮겨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 소속사 대표 공개 비판

“피같은 돈 모두 어디로 갔나”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리더 문준영(25)이 소속사 대표를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실명을 거론하며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문준영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믿고 사랑했던 스타 제국 신OO 사장님, 땀투입하십니까”라며 “아름답고 아이들이 코뮤티하며, 피 묻히며 일해온 수억, 자금, 피같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라고 촉구했다. 그는 “신 대표님, 남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다. 나는 뚜껑 열렸다. 원형 탐오부터 우물쭈물까지 안 겪어본 게 없다”면서 억울함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괜히 참고 살았다. 돌아오는 건 손절때가 없는 욕

설, 폭언과 나를 가뭄된 우물쭈물이었다”면서 “지금부터는 내 사람 잘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준영은 끝으로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 눈으로 본 세상, 눈물로 느낀 인생. 모두 소통하고 대중에게 알려겠다. 이제 그만 되돌려 드리겠다. 내일부터 하나씩 자료 올리겠다”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그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소속사 스타제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국의 아이들은 개별 활동이 많고 멤버 수도 많다보니 월별로 정산을 하고 있지만 개별 수익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는 없다”면서 “다른 멤버들과도 이야기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 데뷔한 9인조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은 박형식, 시원, 황광희 등의 멤버를 중심으로 가요계 안팎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